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3)

- 홍성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홍성군(洪城郡)은 1914년에 종전의 홍주와 결성의 지명에서 한자씩 취하여 처음으로 등장한 명칭이다.

홍주 지역의 고려 이전 칭호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초기 세종 때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홍주목의 백제 때의 칭호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실려있지 않고, 오직 『고려태조실록(高麗太祖實錄)』의 10년 3월에 왕이 운주(運州)에 들어갔다는 기사의 주(註)에서 “지금의 홍주(洪州)이다.”라고 밝혔음을 수록하고 있다. 이 운주에는 고려 성종 14년(995)에 운주 도단련사(運州都團練使)를 두었다가, 현종 3년(1012)에 단련사를 폐하고 지운주사(知運州事)로 고쳤다. 뒤에 운주를 홍주로 고쳤는데,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지홍주사(知洪州事)는 공민왕 7년(1358)에 왕사(王師) 보우(普愚)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홍주목(洪州牧)으로 승격시켰다가, 공민왕 17년(1368)에 지홍주사로 강등되었고, 다시 공민왕 20년(1371)에 홍주목(洪州牧)으로 하였으며,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라 홍주목이라 하였다. 홍주목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현종 2년(1661)에 한때 홍양현(洪陽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복구되었다. 1895년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될 때에 홍주목은 홍주군이 되었고, 이곳에 홍주부관찰사가 설치되어 인근의 22개군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1896년의 13도제 실시에 따라 홍주부관찰사는 1년여 만에 혁파되었고, 홍주군(2등군)은 충청남도관찰사의 관할로 개편되었다.

결성 고을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이다. 일반적으로 삼한시대, 또는 원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의 소국들 가운데 점비리국(占卑離國)을 오늘날의 결성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백제시대에는 오늘날의 결성 지역에 결이군이 있었고, 그 휘하에 장곡면에 있었던 사시량현과 후대에 보령현이 되는 신촌현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결성군은 본래 백제 결이군이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지금에 이른다.’ 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의 판본에 따라 結已郡(결이군), 結己郡(결기군), 結巳郡(결사군) 등으로 읽힌다. 그런데 조선초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結已(결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결이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이군이 신라의 삼국통일 후 경덕왕대에 潔城郡(결성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에 운주의 임내(任內)로 붙였다가, 명종 2년에 결성(結城)으로 고치고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의 결성현은 조선초기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종6품의 현감이 부임하는 고을이 되었다. 결성현은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결성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결성군(4등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에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하고 보령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홍성군이라 하였다.

홍성은 1914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고을 명칭이다. 당시 고을의 명칭에 주가 사용되던 고을은 대부분 그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홍성군은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하면서 새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서류에서는 총독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홍주를 군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홍주결성에서 각각 1자를 따옴으로써 그 연혁을 명백히 하는 한편, ‘洪州’의 발음이 ‘公州’와 동일하기 때문에 분란을 피하려고 홍성으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주와 공주가 일본어 발음으로는 동일한 코슈(こうしゅう)였다.